



LPG업계 주요 이슈

한국LP가스공업협회

- ▶ LPG車 증가 지속
- ▶ 저소득 LPG사용가구 지원방안 ‘절실’
- ▶ 한 “택시 LPG 보조금 지급 추진”
- ▶ 경유차 LPG엔진개조 10만대 돌파

LPG車 증가 지속

7월 1만9,066대 ↑ ... 휘발유 · 경유 ‘주춤’

고유가 영향으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자동차 증가는 주춤한 반면 LPG자동차 증가는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PG엔진개조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함께 국제LPG가격 인하로 9월 국내LPG가격 인하가 예고된 상태여서 LPG차량에 대한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에서 집계한 ‘유종별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7월말 현재 휘발유차는 822만6,900대로 6월에 비해 1만1,664대 증가했다.

전체 등록차량 1,673만5,747대 중 휘발유차는 49.2%의 점유율을 보였다.

반면 경유차는 614만4,280대로 6월 614만4,941대에 비해 661대 감소했다. 이로써 전체 등록차량중 경유차 점유율은 36.7%로 0.1% 가량 줄었다.

7월 현재 등록된 LPG차는 228만9,061대로 전체 등록차량 중 점유율이 13.7%로 지난달에 비해 약 0.1% 증가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유 때문에 LPG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판매가격이 휘발유를 앞선다는 보도 이후 경유차 등록 증가율이 주춤한 현상을 보이고 LPG엔진개조사업과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한 리터당 45원의 가격할인이 경유차 등록감소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선택에 있어서 연료비 부담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료별 차량 등록현황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유가 상승세가 꺾이고 있고 LPG가격도 당분간 하향 안정될 전망이기 때문에 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가스산업신문 8-11 조대인기자]

저소득 LPG사용가구 지원방안 ‘절실’

LPG업계, 당정에 건의서 제출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LPG가스공업협회(회장 유수문)와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박찬목)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정당과 정부에 ‘저소득계층 LPG사용자의 지원방안’이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두 단체의 건의서 제출은 한나라당에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특정품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서둘러 진행된 것이다.

통상 LPG는 도심 산동네, 농어촌 등 LNG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낙후지역의 서민연료로 사용되는데 불구하고 예전 사치품이나 붙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해 LPG사용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지난 3월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경감된 바 있다. 하지만 LPG업계는 일부 인하가 아닌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말 프로판 판매량 313만3,000톤을 기준으로 볼 때 개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62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서민 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 품목에 LPG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LPG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



법 개정을 통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장기적으로 LPG수입·충전단계에서도 부가세를 면세하는 영세제도를 도입해 LPG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서민생활 52개 필수품목에 LPG가 현재 포함된 상태다.

이와 함께 LPG를 주로 사용하는 저소득계층과 LNG사용자간 약극화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LNG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등 LPG사용가구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7월 기준 LPG소비자가격이 지난해말에 비해 40%나 급등하는 등 저소득층 LPG사용가구의 부담 증가로 서민경제를 악화시켜 개별소비세 폐지, 부가세 면제, LPG사용가구 구성원 수를 기초로 한 취사·난방용 연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PG사용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LNG 대비 LPG차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1,305억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정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1,6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가스산업신문 8-8 조대인기자]



한 “택시 LPG 보조금 지급 추진”

한나라당이 택시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LPG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1일 서울 은수동 동진콜택시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경유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LPG 상승분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유가 대책에서 LPG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들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경제 8-1 김진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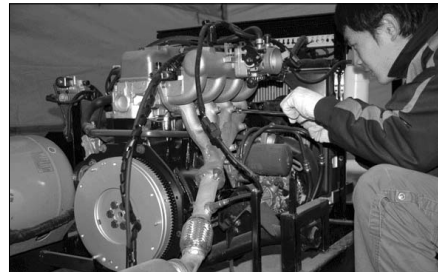


경유차 LPG엔진개조 10만대 돌파

지난해 7월 5만대 돌파기념 1년 만에 성과
사업규모 쑥...시장진출 신규업체도 잇따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유차의 LPG엔진개조가 10만대를 돌파했다.

LPG엔진개조업체의 집계자료에 따르면 경유차량을 LPG엔진으로 교체한 차량은 지난 9일에 9만9000대를, 17일에는 10만1500대를 기록해 누적대수 1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LPG엔진개조는 2003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양적·질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에는 5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135대가 개조됐는데 2004년에는 45억원의 예산으로 1130여대가 LPG엔진개조작업을 마쳤다. 이후 2005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돼 그해 6604대가 개조됐으며 2006년에는 보급이 크게 늘어 당초 목표대수(1만 6710대)를 초과한 2만9000여대의 경유차가 LPG엔진으로 교체됐다.

아울러 지난 2007년에는 성장세가 더욱 가파르게 올라 3만9000여대가 LPG엔진으로 교체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역시 고유가에 힘입어 무난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LPG엔진개조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도 이룸, 엑시언, 엔진텍 등 기존 3개사에서 한국 엔앰텍, 일진전기 등이 추가로 LPG엔진개조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우주이엔비, 블루플래닛, 엔보터 등도 LPG엔진개조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지난해 7월에는 LPG엔진개조 5만대 달성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돼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LPG업계, LPG엔진개조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 LPG개조 세미나 등이 진행된바 있다.

[한국가스신문 7-30 김재형기자]